

“범죄 속 인간의 이중성 그랬죠”



■함평출신 소설가 정유정씨 새 장편 ‘7년의 밤’ 출간

생생한 리얼리티 위해 전문서 탐독·땀 관리소 등 취재

전염병 소재로 한 재난소설 구상 “1년내 완성하고 싶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룬 소설입니다. 삶을 살면서 과업을 향해 치달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것인지, 혼돈 속에서도 기어올라 삶을 이어가게 하는 희망이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2009년 ‘내 심장을 쏴라’로 세계문학상(상금 1억원)을 수상하며 강렬한 필력의 여성 작가라는 평을 얻어온 함평 출신 작가 정유정(44)씨는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새 장편소설 ‘7년의 밤’(은행나무 펄먼)을 이렇게 소개했다.

간호사 출신인 정씨는 세계문학상 수상 후 단편 등 일체의 작품 활동 없이 꼬박 2년 동안 광주 자택에서 ‘7년의 밤’ 집필에만 몰두해 왔다.

“처음에는 살인범과 그 피해자의 심리관계를 비틀어보자는 일개는 잡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지 못해 진전이 없었죠. 막막하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악어족’(1988년 119구조대가 생기기 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물속에서 죽은 시신을 건져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됐죠. 이거구나 했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신작 ‘7년의 밤’은 크게 두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사소설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편은 7년 전 우발적인 사고로 어린 소녀를 살해한 뒤 죄책감으

로 미쳐가는 사내 ‘현수’와 딸을 죽인 범인의 아들 ‘서원’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피해자 ‘영제’와의 숨막히는 대결을 다루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골레를 쓰고 세상을 떠돌던 소년 ‘서원’이 아버지의 사형 집행 소식으로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데서 시작한다.

특유의 상상력과 힘 있는 문장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지만 이번 소설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리얼리티가 특히 빛을 발한다. 이를 위해 정씨는 스쿠버 다이빙 전문서와 잠지를 수없이 탐독하고, 땀 관리소와 검찰청 등 현장 취재를 위해 끊임 없이 발품을 팔았다.

검찰 수사관인 박주환씨는 수사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고 원고의 내용까지 감수해줬으며 119구조대 참수교관 김명곤(광주 광산소방서)씨에게는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땀 관리시설을 찾았다 어렵사리 현장취재를 하고서도 소설 내용이 아랫마을이 침수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는 취재 협조에 난색을 표하는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허락을 얻어내기도 했다.

정씨는 또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실재하

지 않는 순전한 상상의 공간인 ‘세령호’와 ‘동대마을’도 만들어야 했다.

“인간은 어둠과 밝음, 선과 악 등이 공존하는 존재인 만큼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범죄자의 가족까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회가 무서웠고, 갑수록 ‘연민’의 정이 사라진 시대가 안타까웠습니다.”

정씨는 이런 점을 ‘살인마의 아들’의 골레를 쓴 소년 ‘서원’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파국에 치달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씨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혹은 운 좋게 선택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를 막기 위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답한다.

대표작인 ‘내 심장을 쏴라’,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의 영화와 연극 판권을 파는 등 인기작가로 부상하고 있는 정씨는 다음 작품으로 인간과 동물에게 공동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소설을 구상하고 있다. 정씨는 이번에는 육식을 조금 내 1년 안에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페 필로소피아’ 성진기 교수

‘봄 인문학 세일’ 시작합니다

지난해 6월 전남대 후문 인근에 인문학을 함께 나눌 공간 ‘카페 필로소피아’를 오픈한 성진기(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씨는 ‘인문학 Sailing’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했다.

누리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2011 봄 인문학 세일’이 시작된다. 오는 18일(오후2시)에는 10번째 강좌로 한 국내체학회 회장 김정현(원광대) 교수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4월 15일에는 김화택 전남대 명예교수가 ‘생물 속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며 5월 13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인 최림(전남대)교수가 ‘광주문화도시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6월 17일에는 장지 ‘철학과 현실’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광수 한신대 명예교수가 합리적 사고가 어떻게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증해 보는 ‘비판적 사고와 역사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음악 감상 시간도 마련했다. 오는 4월 18일(오후 7시~9시)에는 김용해(전 광주 MBC 편성국장)씨가 터키·그리스 등의 음악을 감상하는 ‘봄 밤에 듣는 월드 뮤직’을 진행한다. 문의 010-9603-3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장 황영성

오늘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선 임원 황영성(70·사진) 화백이 17일 오후 3시 미술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황 관장은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25회 문예진흥기금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이인성 미술상(2004)을 등을 수상했다.

또 프랑스, 영국 등에서의 개인전을 열어 국제화단의 주목과 평가를 이끌었다.

한편 신임 황 관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립현대미술관 수준인 공무원 2급 대우를 받는다. 문의 062-613-71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작가 중국작가 작품 한자리에

‘한·중현대작가초대전’ 23일까지 대동갤러리

광주지역 작가와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광주·전남발전협회는 17~23일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한·중현대작가초대전’을 연다.

중국 취정미술가협회, 취정사범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운남성 취정시를 대표 하는 작가 13명과 광주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중국 전통회화, 판화, 수채화, 유화 등 100여 점을 선보인다.

중국에서는 마펑주·푸바오중·첸젠이·리용강·우왕

전 씨 등이 참여해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회화의 진수를 선사한다.

또 지역 작가로는 김대원·김승근·박종석·양계남·이규용·박태후·이병오·김영태·김종일·류재웅·박병우·박주하·정광주씨 등이 참여한다.

한편 광주·전남 발전협의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일본 가고시마와 미술교류전을 열었고, 2009년부터 운남성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갖고 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상진 작 ‘유곡취’



양계남 작 ‘거룩한 변모’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동사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방,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sojang.com

moviehelic

상무점

1관	별관 내부수리중
2관	별관 내부수리중
3관	별관 내부수리중
4관	별관 내부수리중
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6관	블랙스완 (18세) / 아이엠버보 (12세)
7관	킹스 스피치 (12세)
8관	웨이 백 (12세) / 파이터 (15세)
9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10관	월드 인베이션 (12세)

하남점

1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2관	월드 인베이션 (12세)
3관	킹스 스피치 (12세)
4관	비스틀리 (12세) / 블랙스완 (18세)
5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6관	월드 인베이션 (12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 파이터 (15세)
8관	아이엠버보(12세)/윈도우(12세)/웨이백(12세)
9관	아이들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10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킹스 스피치 (12세)	최고급관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웨이 백 (12세)	
4관	굿모닝 에브리원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6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8관	비스틀리 (12세)	
9관	월드 인베이션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킹스 스피치 (12세)
2관	비스틀리 (12세)
3관	블랙스완 (18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4관	아이들 (15세)
4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5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6관	월드 인베이션 (12세) / 파이터 (15세)
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